

보살의 길

2004년 여름호 제 18호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생활지도원 구현주

1년을 돌아보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미운 사람만 모이게 되어 불행을 자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이게 되어 그 만큼 행복해 지는 것이다”

벌써 양로원에서 근무한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나온 곳이라서 틀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내게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준 값진 시간으로 남고 있다.

사회복지 그중에서도 노인복지의 한 축인 양로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된 사회가 여럿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는 사회인 만큼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개인적인 일로 볼 때는 축복 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시절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사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학생 때는 흘려듣고 말았는데 직접 사회에 나와, 현장에 나와 일하면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없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복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일해 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 초기에는 알 수 없었던 개별적인 특성,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자칫 뜨거운 가슴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내 인생에 있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미운 사람만 모이게 되어 불행을 자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이게 되어 그 만큼 행복해 지는 것이다”

이 말은 쉬운 듯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수도 있다.

하지만 올 한해는 모든 분들께서 위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 래야만 좀 더 행복한 분들이 늘어나고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글을 쓰면서 2004년도의 절반이 지난 지금을 되돌아 반성도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항상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행복한 양로원이 되길.....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Senior Citizens' HOME

양로원에서서의 첫 경험

SK c&c 이소영 대리/ 공공사업팀

오늘은 봉사활동을 가는 날입니다. 팀에서 관심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팀원 모두가 참가하게 되는 봉사활동이라서인지, 봉사활동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어떤 곳인지 모두 궁금해 합니다. 팀장님께서도 잘하고 와서 팀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정류장에 내리니 의외로 변화한 주택가입니다. 봉사활동 경험이 전무한 저는 양로원 같은 시설은 외진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코디네이터의 말씀에 따르면 양로원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고 다니시기 편하도록 주로 주택가에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혜명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깨끗한 시설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들어서는데 마당이며 건물이 너무 깨끗해서 과연 우리가 치울 것이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양로원으로 일단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에 왠지 긴장하시는 듯 합니다.

양로원의 직원분께 주의 사항을 듣고, 업무를 분장 받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노력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남자 4명은 3층, 여자 4명은 2층 저는 부장님과 지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봉사 시작입니다. 신발을 들고 지하로 내려가 보니 지하는 주방입니다. 예쁜영

양사 언니가 저희를 맞아주셨고 바로 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일은 주방 벽과 주방기기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벽에는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끼어있었고 주방기기들에도 까맣게 기름때가 묻어있었습니다. 고무장갑과 세제, 대야를 지급받은 후 바지를 걷어붙이고 일에 착수했습니다. 2시간 동안 벽을 닦고 가스렌지 등 주방기기들을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보다 연약한 관계로 힘든 일은 이종관 부장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4시 정도에 1층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복도, 베란다, 계단청소, 목욕봉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2시간의 노력봉사가 끝나고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와 지로를 접어 봉투에 넣는 일을 모두 모여서 했습니다. 소식지 접는 사람, 봉투에 넣는 사람, 봉투를 붙이는 사람, 주소를 붙이는 사람 등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DM 작업이 이뤄지더군요.

오후 5시, 코디네이터와 함께 봉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 분장을 받았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희 경우 몇 시간 머물지 않았지만 제 손길이 간 데가 있어서인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양로원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모두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SK c&c 2004년 4월부터 매월 2회씩 10여명의 직원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나오시고 계십니다.

젊고 예쁜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이승희 자원봉사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고 육영수여사님이 봉사하시는 “육영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고아원”이라 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을 양로원이라 불렀어요. 그때는 위문품 미국에서 들어온 현웃이나 옥수수가루 우유 가루 등을 가득 가져다 드리고, 흰떡에, 막걸리를 사다드린 기억들이 그윽한데 지금은 문일고 3학년 아들을 어릴적부터 데리고 다니며 봉사를 해오면서 다시금 ‘모전여전’을 그려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봉사를 참 어렵게 만 생각하는데 봉사는 아주 쉬운 거예요.

봉사는 “아주 조그만한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커다란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활에 큰 활력소’가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다 동참하여 우리이웃, 우리지역, 우리사회가 다 동등하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원봉사는 큰 지식이 필요하거나 전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도 못 불러도 할아버님, 할머니께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나누어 준다면 그분들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만 주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행복을 느껴 본 사람만이 간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혜명양로원 어르신들을 “예쁜 젊은 언니, 오빠들”이라 불러요. 이왕이면 예쁜 말씨 쓰면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행복이 두 배가 되니깐요?

오늘도 월요일 오전 일찍 화장을 예쁘게 하고 젊은 언니, 오빠들과 크레용으로 하얀 종이 위에 흰뚝단배를 띄우면서 “에~이야 데이야 노를 저어라~” 하고 큰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춤도 덩실덩실 추며 그림도 그리고 한바탕 떠들고 나면 미술시간인지 노래교실인지 구분이 안되지만 그래도 마냥 행복해 지는 밑그림 색칠시간입니다.

일명 이미자, 조미미, 문주란언니들... 현철, 송대관, 태진아 오빠들, 이제가면 또 언제 올꺼냐고 다리를 붙들고 계단까지 따라 오면서 잡은 손을 부여잡는 어르신들을 뒤로 한채 양로원을 나섭니다.

“사랑은 한없이 주는 것 그리고 가슴 가득히 받는 것이라고 오늘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 가슴은 행복의 꽃바구니로 가득 채워집니다.

* 이승희 자원봉사자는 1999년부터 양로원에서 밑그림 색칠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혜명향년마당



| 5.6 한택식물원 나들이 |

sk c&c에서 후원하고 봉사하여 주셔 어르신 38명이 한택식물원으로 나들이를 다녀 오셨습니다. 맛있는 산채 비빔밥을 먹는 것으로 시작된 일정은 넓게 조성된 식물원을 산책하며 1:1로 연결된 자원봉사자와 재미난 얘기도 하며 오랫동안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주려고 고생한 sk c&c 사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운영 위원회 회의 |

4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 5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예산과 사업계획서보고, 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등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로원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5.8 닭꼬치 잔치 |

구충수님과 임옥수님께서 어버이날 근사한 닭꼬치 잔치를 해주셨습니다. 매월 양로원에 후원금을 주시는 두분은 어버이날을 맞아 장사하시는 장비일체를 가지고 오셔서 어르신들에게 닭꼬치 잔치를 해주셨습니다. 닭꼬치와 막걸리 한잔 노래가 절로 나오는 분위기에서 어르신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충수, 임옥수부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5월 탐동초등학교 방문 |

탐동초등학교 1학년 2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방문하여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태권도, 악기연주, 노래, 편지낭독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르신들은 이쁜아이들의 재롱잔치에 너무나 즐거워 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크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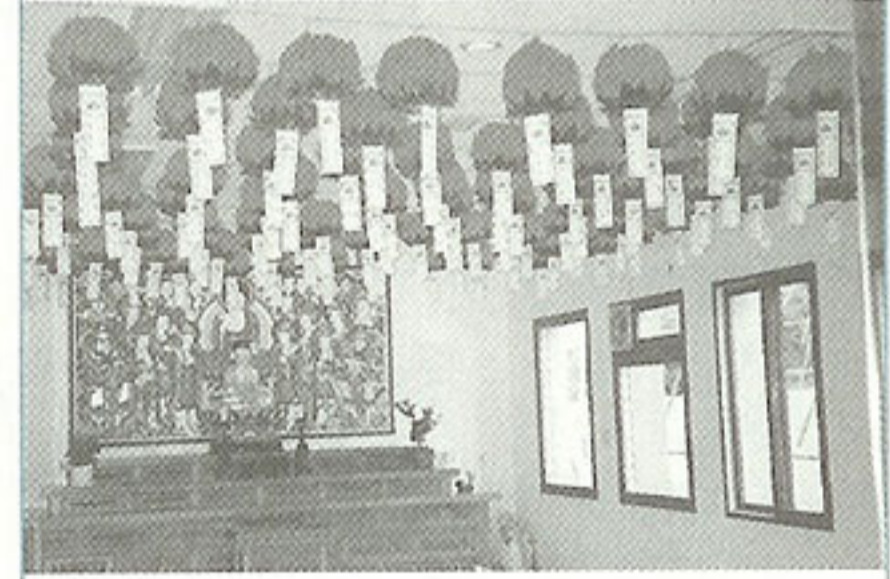
| 5.8 한인수구청장 방문 |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수 구청장님이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셨습니다. 늘 우리어르신들 잊지 않고 찾아 주시는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 매월 1회 노래부르기 |

일요일 오후 2시 신숙례 강사는 옛 노래 부르기 자원봉사를 나오십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일요일, 한달에 한번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쉬시는 것도 마다하고 봉사를 나오시는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등 달기 |

석가탄신일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양로원의 번영을 바라는 연등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2주동안 직원들의 손에 분홍물을 들이며 튼튼이 만든 연등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화복과 만수무강을 다시 한번 빌어 봅니다.



| 꽃씨 심기 |

양로원 담 밑 공터에 어르신들이 코스모스, 봉숭아, 분꽃 등을 심으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붉게 필 꽃들을 생각하니 마음가득 행복해 집니다.

혜명동정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현성큰스님)
- 정원 : 80명(남:40명/여:40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입소대상

- 무료입소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 실비입소

- 입소대상 : 중산층 이하 가정으로 부득이한 사정
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어
르신 20%
- 입소비용 : 보 증 금 : 5,056,590원
월생활비 : 311,000원

● 현재 입소인원 (6월15일 기준)

- 총 83명
- 할아버지 : 28명
- 할머니 : 35(3)명
- 희망의 집(노숙인 쉼터) : 20명
- ※()는 실비입소자입니다.

● 직원 현황

- 총 20명
- 원장/사무국장 1명/ 간호사1명/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전문상담원1명/ 생활지도원 6명
- 위생원 1명/서무1명/ 관리인 1명/ 조리원 5명



| 감사장전달 |

5월14일 안양교도소 최건우수교에게 전역을 앞두고 그동안 이발봉사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는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 문금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노인복지시설 50주년을 기념하는 모범직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있었습니다. 우리양로원에서는 문금자조리원께서 선정되어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직원퇴사.입사 |

-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이미란 영양사 선생님이 4월30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내 화목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김은숙 영양사 선생님이 5월1일자로 입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짹~짹~ 앞으로 우리어르신께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 잘~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

2004년 3월 16일~ 2004년 6월 15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미술교실), 문덕녀(대림미용실), 천종임(민요배우기) 김병보외은행나무팀(밭맞사지), 안양교도소이발(정재현·최건우), 영등포교도소이발(송지섭), 문일고, 동일고, 시흥중 동일여고,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불자연수지침팀 (이정조·김명숙·송안순·박경희), 윤순재(사랑의 모임 국악팀), 강남아이언스안과, 강서고, 동일 여상, 민병렬, 박희영, 김정환(한방침술), 조기환(물리치료), 대한적십자회원들, 윤숙희(미술치료), 이 은하(음악치료), 최순남, 서현정(건강체조), 백산초등학교 6-5반, 문백엔젤스, 배미경(요가), 백련사 신도님들, 씨네티아정보통신, SK c&c. 미림여자전산고등학교. 공무원연수원, 신숙례(노래부르기). 탑동초등학교 1-2반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청담푸드뱅크. 이인자. 라이온스클럽. 213보병연대. 던킨도너츠. 홍순범. 신숙례. 이귀자. 한순문. 백련사. 보라매법당. 성산식품. 복천선원. 금천구청. 현성정사. 이재임. 윤숙현. 보명사. 서서울고등학교. 보라매법당. 혜명회. 백산초. 신상철. 대영정공. 인천보살. 성산식품. 혜명보육원. 대방여중. 구충수. 문일고등학교. 탑동초등학교. 독지가 한상옥. 권기섭. 영진슈퍼. 동대부속중학교. 현성큰스님. 노인복지시설협회. sk c&c.

지로후원

윤중영120,000	임옥수150,000	구충수150,000	한창현5,000	명법사60,000	이정호150,000
안희숙15,000	석혜영30,000	이애자30,000	구봉순30,000	정성현60,000	오원근22,000
석일현30,000	조관우15,000	민병천40,000	한창현10,000	김연숙20,000	윤재순90,000
문금자30,000	정금희10,000	장영애90,000	안정희20,000	백승풍40,000	김상범30,000
이정조30,000	연홍구10,000	황형성20,000	서현종스님30,000		

현금후원

국영호600,000	고영빈30,000	황재기30,000	배승진30,000	박정진30,000	안호영30,000
김은진30,000	한미ANT90,000	이정균30,000	박혜정30,000	김주현90,000	박성수90,000
홍현정20,000	동일여중200,000	김인숙20,000	한태규700,000	구수미100,000	박두영100,000
김평소330,000	임정운20,000	송인석10,000			
청담어린이집100,000		증권거래소900,000		공무원연수원100,000	
동일여고200,000		보명사상원스님300,000		한노협후원금30,000	

양로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www.hmtown.or.kr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 · 뜻 · 한 · 손 · 길 · 을 · 기 · 다 · 립 · 니 · 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 · 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지로번호 : 7655940

지로계좌(우리은행) : 711-046904-13-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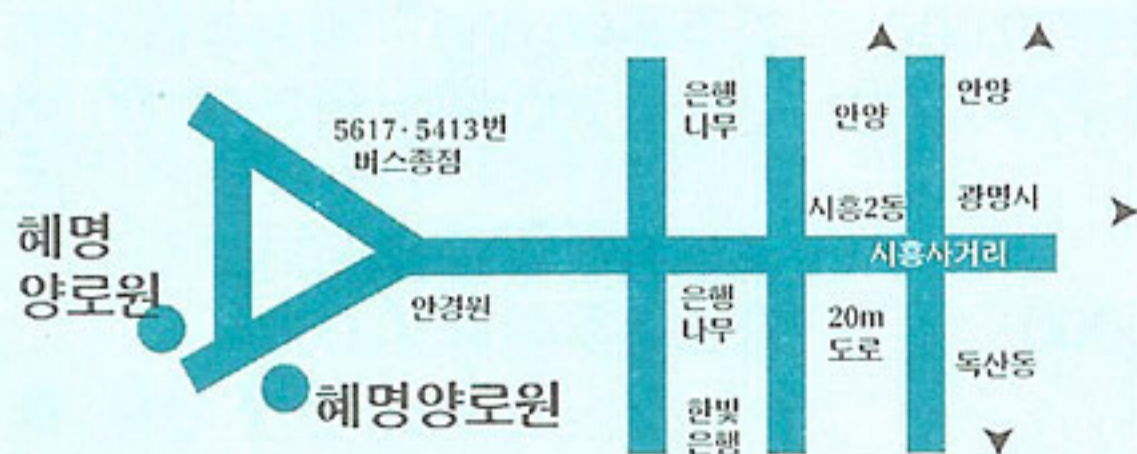
우리은행 : 145 - 05 - 095018

예금주 : **혜명복지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 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하차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